

FOCUS

FOCUS

-2002년도 정부 조달물품 구매계획-

정부조달물자를 계약하는 주무부서인 조달청의 2002년도 월별 조달구매계획 예시자료로 활용 적기 구매·공급으로 수요기관에 조달서비스를 제고하고 조달참여 업체에 대한

정부물자 구매정보 제공으로 계획생산등 경영활동을 지원함에 목적을 두고 정부 조달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조달청 발표 2002년도 정부 조달물품중 레미콘품목 구매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제입찰로 구매할 정부조달물품)

소관부처	'98	용도	계약방법	계약처리기준 및 구매계획	구매시기	자격요건
서울지청	25-180-8 외 KS규격	시설용	일반	· 구매공급부서 : 자치단체구매과 · 구매계획 : 1,487,500m ³	2002.	조달청등록
인천지청	25-180-8 외 KS규격	시설용	일반	· 구매공급부서 : 인천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1,199,000m ³	2002.	조달청등록

(일반내자로 구매할 정부조달물품)

소관부처	주요규격	용도	계약방법	계약처리기준 및 구매계획	구매시기	자격요건
서울지청	25-210-08 외 KS규격	시설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자치단체구매과 · 구매계획 : 1,402,000m ³	2002.	조합원
인천지청	수요기관 규격	시설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인천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137,000m ³	수시	조합원
부산지청	KS규격	시설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부산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1,720,000m ³	2002.	조합원
대구지청	25-210-12 등 25규격	시설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대구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2,000,000m ³	2002.	조합원
광주지청	25-210-08 외 KS규격	시설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광주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153,335백만원	2002.	조합원
강원지청	KS F4009	토목, 건축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강원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125,391백만원	2002.	조합원

소관부처	주요규격	용도	계약방법	계약처리기준 및 구매계획	구매시기	자격요건
충북지청	KS F4009	시설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충북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1,362,000m ³	2002.	조합원
전북지청	KS F4009	토목, 건축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전북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105,300백만원	2002.	조합원
경남지청	25-180-08	시설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경남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110,000백만원	2002.	조합원
	40-135-08	시설용	수의 총액	· 구매공급부서 : 경남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600백만원	수시	조합원
제주지청	KS F4009	시설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제주지방조달청 · 구매계획 : 806,000m ³	2002.	조합원
대전출장소	25-135-08	시설용	단체수의 계약	· 구매공급부서 : 대전출장소 · 구매계획 : 2,500,000m ³	2002.	조합원

- 국제 표준화 기구현황 -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세계 공통의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1947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2001년 말 현재 세계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약 13,500 종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는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 표준화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1906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2001년 말 현재 세계 6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약 4,700 종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 PASC(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태평양지역표준회의)

PASC는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ISO/IEC

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지역표준협력기구이다. 2001년 현재 태평양지역국가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 SCSC(Sub 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표준적합소위원회)

SCSC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산하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하나이다.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의 참여 하에 결성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로서 2001년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에 이르고 있다.

- 건설투자 활발 -

지난해 말부터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가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건축기성액이 전월에 이어 26.1%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행지표인 건축수주액도 아파트 재건축 발주 증가 등으로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부문별로 건축건설에 비해 토목건설은 기성액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수도권 상하수도, 항만 및 공항 등의 발주가 줄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투자가 활발히 전개되는 요인중 하나가 부동산시장의 성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가 크게 확대(전국기준 : 2001. 12월 0.8% → 2002. 1월 2.6%, 서울지역 아파트기준 : 2.2% → 6.5%)되어 서울 강남 및 신도시 지역이 봄이 사철을 앞두고 가격상승기대로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수도권 지역 가격급등의 영향이 인천, 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시로 확산되는 움직임과 아울러 주택청약 열기의 과열로 건설사 등의 건설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콘크리트 판독방법 개발 -

건축현장의 콘크리트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천구(50)교수는 레미콘에 물을 타서 발생하는 부실공사를 방지 위한 콘크리트 판독장치를 개발, 오는 5월부터 실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교수는 “공사현장에 이 장치만 설치하면 콘크리트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해 내 물타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 기존의 콘크리트는 양생이후에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이 가능하였으나, 이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현장에서 곧바로 판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교수는 “공사현장에서 타설한 콘크리트에 물타기를 했는지의 여부를 즉시 판독할 수 있는 이 장치를 오는 5월쯤 공식 발표하고 실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수는 이와함께 물타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법도 개발,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업자들이 작업 공정을 당기기 위해 이뤄지는 물타기를 대체할 ‘분리저항형 유동화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제조법’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은 슬럼프(비빔 콘크리트 반죽 질기)를 뚫게 하고도 강도를 맞출 수 있어 레미콘에 물을 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해 그동안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재정립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체감경기 호전 -

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면 2002년 2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는 110.4를 기록, 1월의 93.4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경기종합지수는 지난해 8월의 81.5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계절적 영향으로 93.4를 기록했던 1월을 제외하고는 지난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점인 100을 상회하고 있다.

경기종합 BSI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와 중견업체,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의 경기종합지수가 120 내외를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크게 호전됐다. 한편 중소기업과 지방업체의 경우도 비록 경기종합지수가 금년 2월 각각 90.7, 94.0으로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으나 1월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했다.

3월에 대한 경기종합 전망지수 또한 144.2를 기록해 199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각종 국내경제지표의 호전, 정부의 SOC 조기발주,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

지속 등으로 업체들의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망지수가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130을 웃돌았다. 이는 건설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대형업체에서 중소기업체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토목과 비주택부문 건설물량 BSI는 전월에 비해 하락했으나 주택부문은 105.6을 기록해 건설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부문의 경우 대기업의 물량지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비주택부문의 경우는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의 지수가 보다 크게 하락했다. 다만, 주택부문에서는 대기업(122.2)의 물량이 1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토목과 비주택부문의 공사물량지수가 하락했으나 전반적인 물량의 하락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건설수주의 경우 대체로 연초에 비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년 1, 2월의 건설물량 BSI지수 하락은 지난 연말에 대비한 건설물량 축소가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월의 경우에도 건설수주가 100 이하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월대비 57.9%나 증가했었다. 결국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할 경우 최근의 건설물량 BSI지수 하락을 건설물량의 위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3월에는 공사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택부문에서만 대형업체 및 서울업체들이 건설물량의 감소를 예상했으며 여타부문에서는 업체규모별, 지역별 구분 없이 공사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업체들은 전망했다.

공사대금 수금(122.2)과 자금조달(116.6)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과 자재부문의 공급 애로 현상이 나타나고 인건비

와 자재비용의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건설물량의 확대에 따른 건설인력과 자재의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자재비의 BSI지수가 각각 66.6, 63.2를 기록했으며 3월에 대한 전망 또한 63.0, 48.5로 나타나 인건비와 자재비의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인력과 자재수급의 경우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BSI지수가 100 이하로 하락해 수급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물량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인력과 자재의 수급불균형과 비용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력부문의 경우 전문인력의 노령화와 젊은 인력의 건설현장 기피현상 등으로 인해 인력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해결, 장기적 건설인력 유입책 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건설물량의 증가가 건설기업의 수익률 제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정리, 최저가 낙찰제 및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보완 등 현안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건설교통부는 저속주행장비의 후부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화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자 건설기계 거래시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시·도지사가 제작하여 검인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2002년 3월 11일자로 개

정 공포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게차 등 저속주행 건설기계의 후부등화장치(번호등, 후미등)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덤프트럭 등 고속주행 건설기계의 제동장치를 정기검사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건설기계 불법거래를 방지코자 양수자·양도자간의 건설기계 매매시에는 시·도지사가 제작하고 검인한 계약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사업 신고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였으며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일부조정(25,000원→35,000원) 하였다.

금번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저속주행 건설기계의 추돌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 불법매매를 근절 하므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월드컵 대비 먼지저감 방안에 따른 공사중지 -

지난 2월 28일 서울시는 건설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회의에서 월드컵 대비 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계획과 이에따른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월드컵 기간중인 5-6월 서울의 먼지오염도가 $82\mu\text{g}/\text{m}^3$ 로 프랑스의 3배 일본의 2배에 달해 오염도 저감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용으로는 서울시를 비롯,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월드컵 기간동안 도로포장공사장등 먼지발생 공사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경기당일에는 건설장비의 운영을 금지하는 등 대기질 관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월드컵 기간중 이에 따라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레미

콘공장 등에 대해서는 경기당일에는 휴무토록 하고, 경기전날에는 먼지발생공정을 자체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토사, 시멘트, 레미콘 차량등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토록 권장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장주변 도로와 나대지 등에는 살수를 통해 먼지비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대회기간중 도로굴착공사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건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경기당일은 물론 경기전날의 주간작업까지 중단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등은 이와 함께 매년 8월 실시하던 대형소각시설의 정비기간을 5월25일부터 6월25일로 앞당기고 발전시설의 가동률은 최소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

환경부는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의 목표와 중요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주는 장기계획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폐기물 관리여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

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어 수립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의 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을 통하여 2000년 현재 0.98kg/일인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1년에 0.91kg/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특히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와 함께 폐기물의 자원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2011년의 폐기물발생량을 추정발생량에서 12% 감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하여 처분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2000년에 비하여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0년에 41%였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8년에는 50%로, 2011년에는 53%로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2000년에 73.5%였던 재활용률을 2011년에는 80%로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설폐기물 재활용 강화방안 추진 방안으로 재생골재의 혼합사용 의무화, 재활용 가능범위의 확대 등으로 재생골재 수요를 창출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일정비율의 재생골재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사용을 권장토록 했다.

[건설폐기물 발생전망]

(단위 : 톤/일)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발생량	78,777	108,580	126,208	145,470

환경부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약 5조원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축허가 증가세 지속 -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월 건설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건축허가와 건설수주가 3개월 평균 50% 이상 증가하고 건설업BSI는 148.8로 전경련 BSI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는 지난해 5월 이후 계속 증가세

[건축허가 현황]

(단위 : 천m², % 전년동기대비)

구분	'98	'99	'00	'01	'01.1	'01.1/4	2/4	3/4	4/4	12	'02.1
허가면적	50,965	72,532	81,059	97,717	5,203	15,634	26,290	25,538	30,255	10,455	9,344
증감율(%)	-55.0	42.3	11.8	20.6	2.7	-14.0	22.5	20.9	49.0	61.7	79.6

[건설수주 현황]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분	'98	'99	'00	'01	'01.1	'01.1/4	2/4	3/4	4/4	12	'02.1
수주액	47,902	51,136	60,152	67,836	2,742	10,520	17,461	14,825	25,028	11,095	4,330
증감율(%)	-40.1	6.8	17.6	12.8	-33.0	-20.7	2.4	16.2	48.6	51.0	57.9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가 이어지고, 1월중은 전년동월대비 79.6% 증가(전월대비 10.6% 감소)하였다.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1월중은 전년동월대비 57.9% 증가(전월대비 6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와 건설수주가 작년 2/4 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후 내수회복을 주

도하고 있으며, 주택도 수요 증가로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또 최근 내수가 호전되고 미국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주요 연구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상향조정할 움직임이 보여 금년도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